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CUOMO 주지사, 요양원 방문 지침 확대 발표

*확대된 지침에 따르면 방문은 CMS 및 CDC 지침에 따라 2월 26일부터 가능*

*보건부는 요양원 방문자가 방문 전 신속 검사를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으며 보건부는 요양원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신속 검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의료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지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양로원 시설 거주 주민 방문에 대한 신규 확대 지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방문객들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신속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며, 보건부는 요양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사를 무료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방문 가능 여부는 양로원 시설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4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시설은 현재 발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 중 하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하여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뉴욕 주민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지침에 따라 요양원 방문을 확대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7일 연속 평균 코로나19 확진율이 5-10% 사이인 카운티의 경우, 방문자 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방문자는 반드시 시설 방문 72시간 내에 받은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PCR 또는 신속 진단 키트)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에서 신속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7일 연속 평균 코로나19 확진율이 5% 미만인 카운티의 경우, 방문자 테스트를 강력히 권장하고 신속 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문자는 방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증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방문은 항상 허용됩니다.

거주민의 필요와 시설의 구조에 따라 거주자의 방, 방문 전용 공간 및 야외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 방문자 수는 언제든지 거주자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방문자의 수와 방문 시간 등은 이러한 수용 인원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합니다.

요양원 방문에 대한 DOH 지침의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